

# “주말은 참 좋은데…” 남구 스트리트 푸드존 ‘온도차’

트리 등 조형물 연말 분위기 물씬  
붕어빵·호두과자 겨울 먹거리 인기  
금·토 반짝 대목…화·목 한산 ‘대비’  
상인들 “평일 활성화 대책 필요”

“행사가 있거나 주말은 괜찮은데, 다른 요일은 손님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刁고민합니다.”

지난 27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은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를 찾아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왼쪽). 반면 다음날인 28일 오후 7시께는 눈에 띠게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 비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보장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주는 “여름은 해가 진 후 더위가 좀 덜하다며 찾아오는 손님이 있지만, 겨울엔 평일 저녁 손님을 보는 게 드물다”며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영업 시간을 강제할 게 아니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상호 대표는 “행사가 주로 있는 금·토는 사람들에게 반응도 좋다”면서도 “같은 주말인데 일요일은 차이가 큰 편이고 평일은 손님이 더 없어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들쑥날쑥한 매출로 인해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과 대책 마련을 통해 스트리트 푸드존이 남구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은 외식·문화 융합형 공간으로 2022년 8월 31일 개소했다. 현재 총점포 40개는 음식점 20곳, 문화·예술 6곳, 관리동 9곳에 공실 5곳이다.

/서형우 기자

## ‘오월 어머니’ 안성례 초대 관장 영면

발인 전 예식 유가족 등 50여명 참석  
5·18민주묘지 1묘역 4구역 40번 안장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시민들을 치료하고, 이후에는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해 힘쓴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이 영면했다.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서구 매월동 천지장례식장 영결식장에서는 안 관장의 장례 예식이 염수됐다.

국회로 장식된 빈소 앞에 모여 앉은 유가족 등 50여명은 예식 시작 전부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추모했다.

장례 예식은 고인이 생전 몸담았던 광주고백교회의 황법현 목사가 집례했다.

예식이 시작되자 영결식장에선 기도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조규성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박상규 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은 각각 기도와 말씀 봉독을 통해 고인의 삶을 기렸고, 참석자들은 빈소 앞에 놓인 안 관장의 관 앞에 차례로 국화를 올리며 애도했다.

예식 내내 눈시울을 뚫었던 유가족들은 안 관장의 관이 운구차에 담기고 영락공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눈물을 훔쳤다.



30일 오전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에서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의 발인식이 염수됐다. 안 초대 관장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 “장애인단체 이사장이 택시 영업” 고발장

### 광주 서부경찰, 겹치 제한 등 수사

광주 지역 한 장애인단체 이사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주 모자치구 장애인협회 이사장 A씨를 상대로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책임자임에도 근무시간 중 협회를 이용해 개인 택시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

르면 관리책임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시간 내 겹치 행위는 제한된다.

고발인은 A씨가 약 3년간 상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받으면서 같은 기간 장애인 이동 지원 바우처 택시를 운행해 이중으로 수익을 올렸고,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으로서 법인 운영과 시설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개인 영리 활동을 병행해 법인 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보조금 등 공적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 근무기록과 택시운행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연상 기자

### 화순 신축 공사 현장서 60대 추락사

화순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52분께 화순군 도암면 한 식품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60대)씨가 약 5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추락과 관련, 안전도착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영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 60대 구속 송치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택에서 흥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보성 한 암산에서 음독한 상태로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서형우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